

학원가 도 넘은 '체벌 갑질'

광주 일부 학원 청테이프로 입 막고 얼굴에 암기내용 적고 성추행까지...불만 제기하면 "학원 끊어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실태조사
상당수 학생 체벌 경험·목적
학교와 달리 학부모도 관대
성적 우월주의의 우려 목소리

체벌이 사라지고 있는 학교 현장과 달리 광주지역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여전히 도를 넘는 체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똑같은 체벌에도 학교 교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사설학원 강사에게는 관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중적 태도에 광주 교사들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남구 일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가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기본법'과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떠든다', '숙제 안했다' 등을 이유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지 않는 학원이 드물

었고, 육설과 폭언을 넘어 성추행 사례까지 조사됐다.

한 학원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말 대꾸를 한다"며 책상을 던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학원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는 등 도를 넘는 체벌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수업 중 '산만하다'는 이유로 필기할 한쪽 손만 남긴 채 다른 손은 테이프를 이용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암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팔에는 유성매직, 얼굴에는 보드마카로 암기내용(수학공식)을 적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는 학원도 있었다.

여성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의 신체를 서슴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려도 소용 없었다.

부모들은 "학원에서 다 너를 위해 그런 것이다",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하길 권했다.

부모들의 묵인 속에 학원 역시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면 사과 대신 "학원을 끊어라", "나중에 다 고맙다고 할 것이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교사들 사이에서는 자조와 함께 성적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사는 "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한 마음에도 작은 체벌이나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원에서는 인격 모독적인 체벌이 벌어져도 '오로지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식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묵인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학업은 물론 인성 교육까지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심은 없으면서, 자신의 이익(점수)을 위해 부당한 대우마저 감내하는 태도는 자칫 부정적인 사회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체벌이 이뤄지는 학원과 정반대

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홍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권침해는 489건에 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성적이 낮을수록 불안 속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과 절실함이 클수록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지역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된 학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시의원 독감예방 접종 특혜' 목포시보건소 압수수색

경찰이 목포시의원들의 이른바 '특혜 독감 예방 접종' 논란과 관련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을 했다.

19일 목포시와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7일 목포시의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공무

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자목된 7급 공무원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검찰, 광주시청 세번째 압수수색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 이번엔 정무특보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이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광주시 정무특보실보좌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정종재 행정부시장실과 운영팀 감사위원장실, 환경생태국, 시의회, 전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광주 도시공사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무원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정삼 전 광

주시 환경생태국장을 구속한 상태이며,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잇단 화학물질 누출 사고...영암서 탱크로리 경유 유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 서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22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적재된 경우 4000ℓ가 유출돼 소방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북광산나들목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차량 용배터리 1000여 개가 떨어져 소량의 황산이 유출돼 환경당국이 방제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8일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실 리모델링 중 포르말린 1ℓ가 누출됐다. 또 지난 9월 16일에도 나주의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이 담긴 2ℓ짜리 유리병이 깨지는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르말린은 폼알데하이드 수용액으로 독성이 강해 호흡곤란과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포르말린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1건, 올해 1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우이웃 도울 버섯 사세요

1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버섯 판매 행사에서 북구 여성단체 회원들이 버섯을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주 해상 갈치잡이 어선 화재...1명 사망·11명 실종

文 대통령 "모든 자원 총동원 구조"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19일 오전 7시 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구조에 나선 해경은 오전 10시 20분께 사고 선박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해상에서 선원 1명을 구조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 조사 결과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며 이들의 주소는 경남 통영과 사천, 부산 연제구 등이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으며 지난 18일에 임항할 예정이었다. 선박 소재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해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무단횡단 고3 교통사고 숨져

지난 18일 오후 7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광주 모교고 3학년 A군이 B(26)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9차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전취식에 주먹 휘두르고 출동 경찰 앞에서 바지까지 내려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바지를 내린 50대가 철창형.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식당주인 B(여·61)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갑작스레 바지와 속옷까지 벗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동종 전과로 재판 중인 A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